

국별 리포트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9,561 천 km ²	G D P	82,563억 달러('12년)
인구	13억 7,706만 명	1 인 당 GDP	6,212 달러('12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화단위	元 (RMB)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6.31 ('12년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3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
- 하지만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산업설비 및 인프라의 비효율화, 지역 간 불균형,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또한,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어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후,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도하에 내수·소비 주도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과도한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제성장률	9.2	10.5	9.3	7.8	7.5
재정수지 / GDP	-2.2	-1.7	-1.1	-1.6	-2.1
소비자물가상승률	-0.7	3.3	5.4	2.7	3.0

자료: IMF.

□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13년 상반기 7.5%의 경제성장률 기록

- '08년 중국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약 4조 위안(약 64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09년 ~ '11년 동안 높은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 기록하며 9% 이상의 경제 성장률 시현.
 - '09년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2.8%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 기록하며 9.2%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10년과 '11년에도 GDP 성장의 58% 이상을 고정자산투자와 정부지출이 기여(민간소비는 GDP 성장의 35% 기여)하며 각각 10.5%와 9.3%의 경제 성장률 시현.
- '12년 미국, EU 등의 경제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로 중국은 '09년 ~ '1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시진핑 정권의 출범 이후, 내수·소비 주도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과잉 경기부양을 자제한 결과, '13년 상반기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추이 지속.
 - HSBC 제조업 PMI 지수는 '13년 5월부터 50 이하(경기위축 의미)를 기록하여 '13년 하반기의 경기위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HSBC 제조업 PMI
50.4('13년 4월) → 49.2('13년 5월) → 48.2('13년 6월) → 47.7('13년 7월)
 - 중국 정부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목표 성장률(7.5%)과 목표 실업률(4.6 ~ 5.0% 이하)을 달성하기 위해 내륙 철도 건설과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중.

□ '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증가 및 지방정부부채 확대 예상

- '11년 1.1% 수준이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지출 확대로 '12년 1.6%로 확대됨.
 - '13년에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공공부문 등에 대한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2.1%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한편, Fitch는 '12년 중국의 예산외(off-balance) 지방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25.1%인 12조 9천 위안(약 2,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13년도 지방정부부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GDP 대비 지방정부부채 추이: 18%('08년) → 23.4%('11년) → 25.1%('12년)

□ '13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대 유지 전망

- '11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였으나, 식품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4%)를 넘는 5.4%를 기록하였음. '12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둔화로 2.7%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13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계 원자재 가격 안정 및 경기 둔화 우려로 3%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림자금융 이슈 부각

- '08년 대규모 경기부양(4조 위안 이상, 약 640조 원)으로 인해 발생한 과잉 생산 ·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함. 하지만 오히려 지방정부 ·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탁회사 등을 통한 비은행권 금융조달(그림자금융)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전체 대출증가 속도에 비해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림자금융은 일반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높지만 감독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06년 이후, 전체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24.3% 이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연평균 41.4% 증가함.

□ 투자 주도 경제성장의 부작용과 민간소비 및 내수 시장 확대의 필요성

- 중국은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 '11년 중국의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45.5%로 인도의 29.5%, 브라질의 19.3%, 한국의 2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반면 '05년 이후,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의 비율은 40%미만을 유지하였고 '08 ~ '12년에는 35% 내외에 머물러 있어 '12년 기준 미국의 70.7%, 일본의 57.1%, 인도의 55.1%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
- 지나친 고정자산투자에 따라 유희설비 증가, 가동률 하락 등의 산업설비 비효율이 만연해 있어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설비의 효율화 및 산업·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중서부지역 개발을 바탕으로 동부 지방과의 지역 격차 축소, 내수 시장 확대, 도시화를 통한 농민공의 2, 3차 산업 고용 확대를 추진하여 1인당 GDP 및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꾀하고 있음.

□ 자원다소비와 환경오염 문제

- '12년 기준 미국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소비는 일일 1,028만 배럴로 미국(1,855만 배럴)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석탄 소비는 세계 1위 (연간 39억 톤)임. 이와 같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중국은 연간 미국의 1.6배에 달하는 8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또한, 환경오염으로 전국 강·하천의 70%가 오염되었음(40%는 자정기능을 상실).
- 향후 환경오염 복구를 위한 막대한 비용으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 민영기업에 비해 높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 '11년 기준, 국유기업은 중국 수출·수입의 14.1%, 28.3%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자산수익률은 4%대로 민영기업의 14.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추가적인 시장 개방, 국유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가 중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15년부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상

- 중국은 1998년 이후 매년 10%이상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 ~ 64세)가 '14년을 정점으로 '15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해 보임.
- 노동자 임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타 국가로의 이전이 진행 중임. 새 정권의 기조에 맞추어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 도시화 및 중서부 지역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 필요

- 중국의 도시화율이 '11년 51.3%에 불과하며 6개월 이상 거주인구 기준 중국 도시화율은 39.5%에 불과함. 이는 한국 83.2%, 미국 82.4%, 세계평균 5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성장잠재력이 충분함.
- '11년 기준, 중국 도시의 1인당 소비지출금액은 15,161위안으로 농촌의 5,221위안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준임. 도시화를 통해 농민공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하여 내수 · 소비 확대 및 소득재분배 등의 정책적 목표 달성이 가능함.
- 현재 동부지역의 1인당 GDP는 중서부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12년 기준 1차 산업 비중이 중서부 지역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중서부 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빈부격차 해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임.

다. 정책성과

□ 새 정권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과도한 경기부양 및 유동성 공급 정책 자체

- '08년 이후 약 4조 위안(약 640조 원)의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산업설비 및 인프라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설비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어 새 정부는 과도한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륙 철도 건설,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의 소규모 경기부양은 추진 중임.

- '13년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13년 6월 상하이 은행 간 금리 급등에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유동성의 과잉 공급을 자제하고 있음. 또한 시장에서도 저금리 자금을 이용한 과잉 투자 현상이 자제되고 있는 국면임.

□ 주요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진행

- 철강 부문의 경우, 중국 86개 철강사 중 35개의 철강사가 '13년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3년 말까지 24개 제강사(7백만 톤)와 9개 선철사(3백만 톤)의 설비를 폐쇄할 계획임.
- 조선 부문의 경우, '15년까지 생산설비 증설을 통제하고 해양설비 및 첨단선박 분야의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임.
- '13년 상반기 주요 80여개 선박제조업체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35억 8,000억 위안(약 6,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3.6% 감소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f
경 상 수 지	243,257	237,810	136,097	193,139	191,939
경상수지/GDP	5.2	4.0	1.9	2.3	2.1
상 품 수 지	322,831	245,535	236,051	317,596	371,569
수 출	1,203,800	1,476,225	1,805,901	1,970,946	2,131,555
수 입	880,969	1,230,690	1,569,580	1,653,350	1,759,986
외 환 보 유 액	2,399,150	2,847,340	3,181,150	3,311,590	3,461,584
총 외 채 잔 액	428,700	548,900	757,100	944,200	1,114,000
총외채잔액/GDP	8.6	9.3	10.3	11.4	12.0
D S R	2.7	3.5	3.6	1.7	2.0

자료: IFS, EIU.

□ 서비스 수지 적자로, '13년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전망

- '11년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와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인한 수입 증가, 투자소득 및 임금 소득의 대외지급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10년 2,378억 달러에서 '11년 1,361억 달러로 감소함.
- '12년 모니터 패널 및 무선장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3,176억 달러로 전년대비 34.6% 증가하였으나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서비스 적자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1,931억 달러에 그침.
- '13년 임금상승으로 인한 중국 상품 수출 경쟁력 약화, 내수 소비재 생산을 위한 수입 확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서비스 적자 확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수준은 전년 수준을 소폭 밑도는 1,91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중국의 외채관련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보유

- '11년 7,571억 달러 수준의 총외채잔액은 '12년 무역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단기외채 증가와 에너지 및 제조업 등에 대한 중장기 외채 증가로 인해 9,442억 달러(GDP 대비 11.4%)로 증가. '13년에는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차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외채잔액이 1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중국은 '13년 3월 기준, 3조 4,616억 달러의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 보유 자산 역시 GDP 대비 4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보유액의 18.6% 수준이며 D.S.R.도 2%대의 낮은 수준 유지.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13년 초 새로운 지도부 취임 이후, 정치적 안정 지속 중

- 안정적인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5세대 정권이 출범하였으며 정권 교체로 인한 정국 혼란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새로운 지도부는 내수·소비 위주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질적성장을 통해 계층 간 소득재분배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꾀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수민족과 한족과의 갈등의 불씨 존재

- '09년 5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연이은 충돌 사태로 64명이 사망하였으며 최근인 '13년 8월에도 크고 작은 충돌 사태가 발생함.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경찰 병력 배치 등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공직자 비리 만연

- 새 지도부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직자 비리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 중국 수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13년 상반기, 공직자 수뢰·횡령 사건은 총 17,414건(22,939명)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기준 1.6%(인원 수 기준 2%) 증가함.

3. 국제관계

□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위해 노력

- '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갈등을 줄이고 양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윈-윈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함.
-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대규모 기밀 유출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스노든 사건 등을 통해 오히려 중국정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임.

□ 중국은 WTO 무역분쟁 최다 피소국으로 EU·미국과의 무역갈등 지속

- 세계 경기 불황 및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형국임.
- '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WTO에 602회 제소되며 최다 피소국이 되었고 피소된 수출금액은 390억 달러(약 42조 원)임. 한편, '13년 8월 중국과 EU는 중국산 태양광패널 무역 분쟁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나 같은 시기 EU측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됨.
- '11년 이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미국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 내 반덤핑 및 상계관계 이슈 등으로 양국 간 무역 갈등 지속 중임.

□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영토분쟁으로 일본과의 관계 급격히 냉각

- '12년 4월 도쿄도가 센카쿠 5개 섬 가운데 3개 섬에 대한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반발함. 현재 3개 섬은 일본 국적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실효 지배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
- 이에 '12년 8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발생하고 도요타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됨. 일본에서도 반중시위가 발발하고 10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IMF·WB 연차총회에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재정부장(재무장관)이 불참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됨.
- 영토분쟁에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민당*이 '12년 12월 총선과 '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영토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 자민당은 센카쿠 열도의 공무원 상주, 다케시마의 날 국가 공식행사 지정 등을 공약함.

□ 러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외교 활발

-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가스관을 건설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러시아는 '09년부터 동시베리아-태평양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매년 약 1,5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3,100만 톤까지 단계별로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임. 중국은 원유 공급을 조건으로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티(Rosneft)에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함.
 - 러시아는 향후 건설될 가스관을 통하여 중국에 '18년부터 30년간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함.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차관 지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여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양의 주요 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 '09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한 금액은 183억 달러에 달하며 '12년 7월 5차 중국-아프리카 포럼(FOCAC)에서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200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약속함.
 - '10년 기준, 중국은 원유의 23%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25년경 45%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코발트의 90%, 망간의 40%, 크롬의 35%를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대만과의 관계는 마잉주 총통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마잉주 총통이 '08년에 이어 '12년 1월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 '10년 7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PA)이 체결된 이후, 대만 제품 및 서비스의 대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통합이 가속화됨.
- 대만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대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QDII* 한도를 두 배로 확대(5억 달러 → 10억 달러)하고, 대만 투자기관에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
 - * 중국 내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로 중국 외환관리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권리를 부여 받은 금융기관
 - **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의미하며, 홍콩 소재 금융사들이 위안화 표시 발행 조달 자금으로 중국 금융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요건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국은 리스케줄링, 연체경험이 없으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자국민의 해외차입 및 외국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외환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외화 유출에 따른 외채상환 불능사태 가능성 미미.

2. 국제시장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높은 신용등급 유지
 -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풍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신용도 유지.
 - OECD 2등급, S&P AA-(stable), Moodys Aa3(stable), Fitch A+(stable).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3.08	B1	2013.02
OECD	2등급	2013.06	2등급	2012.03
S&P	AA-	2010.12	A+	2008.07
Moody's	Aa3	2013.04	Aa3	2010.11
Fitch	A+	2013.04	A+	2012.04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USEXIM): 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8월 24일(북한과는 1949년 10월 6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 · 투자협정(1992년), 문화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원자력협정 · 세관협력협정(1995년), 복수사증협정(1998년), 어업협정(2001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2007년)
- **'1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다소 회복**
 - '1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은 69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수입은 410억 달러, 1.2% 증가).
 - '12년 대 중국 수출은 1,343억 달러(전년 대비 0.1% 증가), 수입은 808억 달러(전년 대비 6.5% 감소) 기록.
 - '00년 이후 연평균 19.2% 증가하던 수출 증가율이 확연히 감소하였으나, '12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24.5%, 전체 교역액 중 20.1%를 차지하여 1위의 지위를 유지함.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 부진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가공 무역 축소에 따른 중간재 수입의 감소 등에 기인함.

<표 4> 한·중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중국	2011	2012	2013.6	주요품목
수 출	134,185	134,323	69,52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석유제품
수 입	86,432	80,785	40,986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합 계	220,617	215,108	110,511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은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
 - '13년 6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누계는 429억 달러로 미국(448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하지만 '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누적액은 379억 달러로 미국(365억 달러)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함.
 - '12년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33억 달러로 동년 전체 해외투자액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투자액의 69.6%, 서비스업이 23.7%임.

VI. 종합 의견

- '03년 이후 9~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2년 7.8%, '13년 상반기 7.5%로 경기 둔화세가 지속됨. HSBC 제조업 PMI 지수의 하락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추가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소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12년 식료품 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5.4%에서 2.7%로 낮아졌으며, '13년에는 세계 원자재 가격 안정 및 경기 둔화 우려로 3%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노동 집약산업의 경쟁력 상실, 주요 선진국의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수출·투자 주도 → 내수·소비 주도) 등에 따라 '10 ~ '11년 20%에 이르던 총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하여 '12년 9.1%, '13년 8.2%를 기록할 전망이다.
- '13년 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였으며, 일당체제의 안정적 사회주의 체제 하의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 새 지도부는 과도한 경기부양 및 지나친 고정자산투자를 자제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내수·소비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하여 1인당 GDP 향상 및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비은행권 대출 및 지방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비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지방부채에 대한 감사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12년 11.4%에서 '13년 1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지만 '13년 3월 기준 3조 4,616억 달러의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GDP 대비 44.3%에 이르는 대규모 해외자산 등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유 재 준 (☎02-3779-5716)

E-mail: jjyu@koreaexim.go.kr